

생활 속 환경 생각하는 작은 실천부터



문정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환경오염이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얼마 전 한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에 관한 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준 것 같다.

환경호르몬이 암 발생률을 높이고 생식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동물의 이성생식세포(동일 개체가 암·수 생식세포를 동시에 가진 것) 발생률을 높인다는 내용은 우리

에게 공포감마저 갖게 한다.

주부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용기로 바꾸는 등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던 것들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녀들의 아토피, 천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이제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이나 외국으로 이사를 가는 가정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환경호르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예민한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아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동물의 생식기 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선진국에서도 최근에야 시작되었다. 2005년 발간된 일본 환경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합성세제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노닐페놀 등 3개 물질이 수컷 송사리를 암컷화 시키는 등 어류의 성호르몬 장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포유류 실험에서는 명확한 장애 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WHO 조사에서도 정자 수 감소 등



화학물질에 의한 인체 유해성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공기나 토양 등에서 측정된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의 수준은 일본과 비교할 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고, 어류·양서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선진국의 오염되지 않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호르몬 장애 작용의 불명확성과 생태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부족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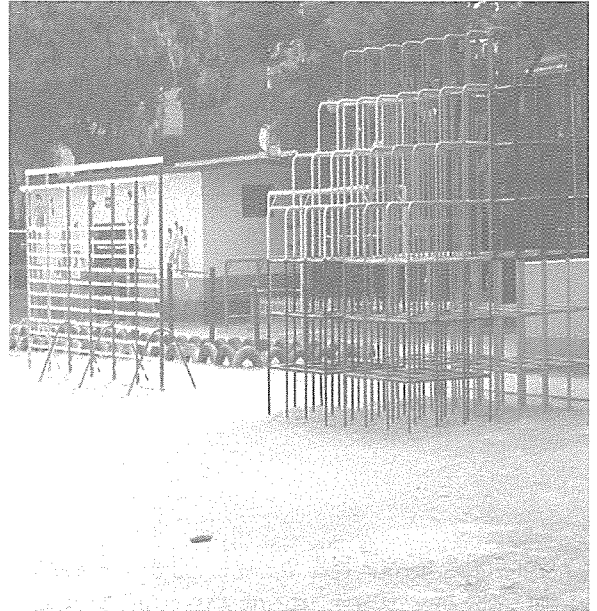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으로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기존의 오염물질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국민건강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금년을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언하였고, 2월에는 환경보건정책 중장기 로드맵이자 실천 계획인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금년 5월에는 특히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환경건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현재 '환경보건증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 132억원을 투입하여 폐광·산단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어·패류 등 생체내 수은축적 조사, 산모, 영·유아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어린이 사용제품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성 조사, 도시·농촌 등 유형별 어린이 환경성질환 발생 실태 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일회용품·인스턴트 식품 자제를

최근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공포는 어떤 화학물질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채 막연히 환경호르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만 중점적으로 보도되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조속히 규명해내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환경호르몬에 의한 위협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과 인스턴트식품을 자제하고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나가는 습관이 필요한 때이다. ◀